



Hello to all! I am Sister Joan Murray and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on June 10, 1978 from Swissvale, a small town, in Pittsburgh, Pennsylvania about 30 miles west of Seton Hill. After being educated by the Sisters of Charity at St. Anselm's Elementary and High School, I discerned my religious vocation while attending college. Subsequently, I graduated from Carlow College in 1978 with a B.A.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and minors in psychology and in science.



Next, I began my initial formation years. I ministered at Project Forward, St. Luke's Parish, and Greensburg Catholic Charities as a social worker. After I made perpetual vows on August 18, 1984, I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earning a Masters of Social Work with a concentration in Health/Mental Health. Remaining in Pittsburgh, I practiced in various social services agencies, a hospital, and nursing homes. Social work continues to be a very enriching and rewarding ministry allowing me to work with diverse populations.



Currently, I am working with persons with physical/mental disabilities or other barriers at Life's Work of Western Pennsylvania. By completing community based assessments, clients are able to be employed, volunteer, or be involved in sheltered workshops. In this setting, I encounter the strengths, the struggles, and the limitations of being a human being.

As a member of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 am actively involved in the *Venimos Con Gusto* Conference, Black Lives Matter/All Lives Matter, and other committees.



Daily, I am ever grateful to God for being a Sister of Charity. I leave you with the words of St. Elizabeth

Ann Seton:
 "Sisters of Charity! Your admirable name must excite in you every preparation to do justice to your vocation."





수녀님들 안녕하세요! 조앤 머레이 수녀입니다. 저는 씨튼 힐에서 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피츠버그의 작은 마을 스위스배일 (Swissvale) 출신으로 1978년 6월 10일에 입회했습니다. 세인트 안셀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St. Anselm's Elementary and High School)에서 우리 수녀님들에게 배웠고 대학에 다니면서

수도성소를 식별했어요. 전공은 사회학/인류학이고 부전공은 심리학과 과학으로 1978년 칼로우 대학(Carlow College)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초기 양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포워드(Project Forward)와 성 루카 본당, 그린스버그 가톨릭 자선단체인 그린스버그 카톨릭 채리티스(Greensburg Catholic Charities) 에서 사회복지사로 사도직을 했어요. 1984년 8월 18일 종신서원을 하고 난 후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보건/정신보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에 남아 다양한 사회복지 단체, 병원, 양로원에서 일했지요. 사회복지는 매우 충만하고 보람 있는 사도직이에요. 사회복지 사도직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답니다.



현재 저는 라이프 워크 오브 웨스턴 펜실베이니아 (Life's Work of Western Pennsylvania -역주: 장애인 지원, 직업교육, 고용 지원을 하는 비영리 단체) 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다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지역사회기반 평가 시스템이 완료되어 의뢰인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인간이 지닌 힘과 노력,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로서 저는 *Venimos Con Gusto* 컨퍼런스 (베니모스 콘 구스토 컨퍼런스), Black Lives Matter/All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모두의 생명은 소중하다- 역주: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과 다른 위원회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의 수녀가 된 것에 대해 날마다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의 말씀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 사랑의 수녀들! 이



아름다운 이름은 그 부르심에 맞갖은 모든 준비를 하도록 여러분을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